

CBS 창사 50주년 기념식 축사

CBS의 창사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BS야말로 참언론입니다. CBS야말로 믿을 수 있는 언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고 가꾸어 나가야 될 언론입니다.

언론의 사명은 우선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의 파수꾼이 되고 정의의 횃불이 돼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불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큰 불의, 힘센 불의와 맞서야 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숨어서 저지르는 크고 작은 부정들은 국가권력이, 그리고 사회여론이 얼마든지 제어하고 바로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저지르는 부정과 불의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결국 국 살아 있는 시민정신에 의해서만 제어가 가능합니다. 시민들의 살아 있는 정신은 바로 올바른 정보와 올바른 공론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민정신이 살아 있도록, 깨어 있도록 지켜 나가고 가꾸어 나가는 역할을 할 때 그 언론이 바로 정의의 횃불이 되는 것이요, 정의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CBS야말로 50년 세월 이와 같은 역할을 그야말로 성실하게, 그리고 역량 있게

잘해 왔습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못하면 무슨 보람이겠습니까? CBS야말로 시대에 잘 맞추어서 온갖 고난을 잘 극복하면서 결국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틀의 정의의 시대를 만들어 내는 데 햇불 노릇을 했습니다. 선도자의 노릇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업적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함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언론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권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론은 날이 잘 드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것이 정의를 위해 쓰여질 때는 그야말로 역사를 진전케 하는 훌륭한 힘이지만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 그것이 권력과 결합했을 때 그 폐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시녀가 되고, 권력에 봉사하고, 힘없는 사람을 짓밟고, 정의를 짓밟을 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불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막강한 힘이 남용됐을 때, 그것은 누가 제대로 제어할 수도 없는 불가사리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언론을 얘기할 때마다 또 항상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론의 혜택을 입었으면서도 때로는 언론을 경계하고 제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과거 독재시절과 같은 그런 박해는 아니라 할지라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고난 아닌 고난을 겪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CBS는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니다. 절제를 잃지 않았습니니다. 이제 맞서 싸워야 될 불의의 권력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해소됐다고 생각할 때 새로운 공론을 찾아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가야 될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말하자면 시대와 역사를 앞서가는, 그야말로 등불의 역할을 다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아니 그 이전부터 해 왔던 일입니다만, 시대의 변화에 맞춘 언론의 역할에 아주 적절한 자리매김을 해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CBS는 보다 더 향상된 민주주의,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이 누려지는 인권의 시대를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늘진 곳 없이, 억눌린 곳 없이, 소외된 곳 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균형 사회를 추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적인 경쟁 속에서 우리 한국도 뒤떨어지지 않고 한 걸음 앞서가는 그런 선진국가가 되도록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CBS와 같이 눈을 바로 뜨고 있는 언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정의가 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도 바로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CBS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오래 전부터 노래해 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몇 가지 과제는 시간이 걸리고 우여곡절이 있고, 또 때때로 갈등이 있지만, 저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것은 우리가 관용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용납하면서 대화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양보하면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CBS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맞닥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적 과제를 함께 열심히 짊어지고 나가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바른 언론이 되자면 항상 바른 소리를 해야 합니다. 권력은 항상 바를 수가 없습니다. 정치는 올바른 목표가 있지만 때로는 전략을 위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또 넘어가기도 하는 곡절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전술이 있어야 되고 술수까지도 필요하다고 용납해 주는 영역이 정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어되지 않는 권력이 위험하기 때문에 언론이 깨어서 항상 견제하고 바른 소리로 자세를 가다듬게 하고 방향을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저는 CBS가 가끔 쓴소리를 할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섭섭합니다. 잘한다고 하는데 그 좀 지켜봐 주지 않고, 왜 가차없이 비판할까? 그러나 저는 그래서 더 좋습니다. 비판할 줄 모르는 언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짜지 않은 소금이 무슨 소금이겠습니까?

설사 그 비판이 내 진실한 뜻을 몰라 주고 내 전략을 몰라 주고 뭔가 좀 너무 속단이다 싶고 억울하다 싶어도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CBS는 스스로를 정쟁의 도구로 내던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BS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스스로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 힘을 남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시대의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선의를 가지고 바른 정론을 펴고 있기 때문에 설사 때때로 틀릴 수가 있다 하더라도, 나와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크게 번창하고 성공하십시오. CBS도 사업이니까 청취율이 높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품위를 잃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품위를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이런 CBS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까지 주십시오.

이번에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상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올바른 방향만 잡아서 서로 협력하고 갈등을 극복하면서 이렇게 시대의 대의를 열어서 나가면 세계 어느 강대국에게도 기 놀리지 않는,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당당한 국민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제 희망을 만들어 갑시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대통령 밉다고 우

리 국민의 희망을 훼손하는, 흠집내는 일까지는 좀 하지 말아 주시기를 아울러 당부드리겠습니다. 밋더라도 대한민국은 다 같이 우리 함께 잘되게 한 번 해 보십시다. 이 길에 CBS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기대를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CBS를 만들고 지원하고 키워 오시고, 또 많은 성과를 이기면서 CBS의 정신을 올바르게 지켜 오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